

# 變革의 나라 蘇聯을 다녀와서



최 영 훈  
본회 미주과장

필자는 지난 9월 8일부터 열흘간 대소 전자통신 조사단의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를 다녀왔다.

소련에 대하여는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와 자료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숙해져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다. 本考에서는 조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느낀 소련의 현실에 대하여 단편적이거나 마 반추해 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단의 파견은 지난 8월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소 경제 협력회담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양국간 전자·통신산업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교역, 합작투자, 기술체휴 등의 유망분야를 조사하여 첨단기술 移轉 가능성을 모색키 위하여 추진되었다.

조사단은 구자학 전자공업진흥회장을 단장으로 업계대표와 상공부, 체신부, 산업연구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바로프스크 3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 “에어로 플로트” 로 부터 시작된 소련 체험

이번 조사단의 파견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탓도 있겠으나 요사이 소련과 유럽으로 나가는 사업과 관광목적의 여행객 수

의 폭발적 증가로 대한항공 서울-모스크바 직행편은 일찌기 포기해야만 했다. 할 수없이 동경 경유 소련 항공기인 “에어로 플로트”에 오른 일행은 탑승 순간부터 소련의 냄새를 맡는 듯 했다. 협소한 좌석, 음악·영화도 없고, 단지 음식만이 제공될뿐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책을 본다던가, 잠을 자는일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아마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비행기란 타고 가는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이후 호텔 방에서 느낀 샤워와 베드만 있으면 호텔의 기능은 충분하다는 생각, 즉 “잠자는 곳”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개념과 통하는 것 같았다.

10시간의 비행끝에 이름도 생소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60년대의 시골역 이라고나 할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은 침침하였고, 연기도 자욱했다. 미국이 흡연자가 필시받는 곳이라 한다면 소련은 그들의 천국이리는 산실을 차츰 알게 되었다.

우리의 짐은 안내표시와는 달리 루프트한시 도착편에서 나왔고, 독일에서는 승객은 우리쪽에서 짐을 찾아야 했을때 부터 혼돈은 시작되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차창으로 비치는 모스크바의 첫풍경,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질 정도로 거리는 한산하였고, 땅은 넓고 비옥

하게 보였다.

## 크레믈린궁과 붉은광장

다음날은 휴일인 관계로 일행은 소련 국영 여행사인 Intourist의 안내로 시내 Tour에 나섰다.

오전에 먼저 들른 곳이 시내 중심가의 크레믈린, 어렴풋이 기억되는 국민학교 시절 사회책에서 보았던 궁전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다.

궁안에 특별히 건립된 박물관에는 帝政 러시아 시대의 복장, 병기, 해외에서 선물로 받거나 빼앗아온 보석류들이 즐비하였는데 돌아보며 느낀 것은 그 시절 왕족 한사람 한사람을 위하여 성당을 지었고, 예배를 보았던 러시아도 귀족중심의 종교, 극소수의 지배자를 위한 人民의 희생이 따랐던 中世 제국주의의 특징이라는 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르바췌프의 집무실이 모스크바에 두 곳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곳에 위치하였다.

휴일이라 관광객은 줄을 이었고, 소련 국내인은 20세 전후의 군복의 청년들과 가슴에 훈장이 주렁주렁한 제복차림의 퇴역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소련 어디를 다녀봐도 아직도 이 두사람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 피터시대의 유물과 레닌의 동상, 사진, 초상화 등으로 덮여 있다. 현재의 레닌그라드도 옛날에는 “피터의 市”였었는데 근래에 들어 “레닌의 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UN에서 신발을 벗어 책상을 두드렸던 후루시췌프가 다른 국가 유공자와 함께 공동 묘역에 잠들고 있는데 비하여 레닌이 붉

은 광장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것을 보면 그 추앙의 度는 상당하였다.

붉은광장이라 하여 광장이 붉은 것으로 알았는데 소련에서 “Red”의 의미는 “매우 좋은”, “훌륭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우리 TV에 자주 비치는 바실리성도 이곳에 있는데 제정 러시아 시대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자랑하고 있다.

## 소련 전자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9월 10일은 우리 조사단이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오전에는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 근교 “첼레노그라드”에 소재한 전자공단과 전자성을 방문하였고 이어서 단장단은 라디오성으로 장관 면담, 통신성으로 차관을 면담하였으며 단원은 다시 두팀으로 나뉘어 “루빈”공장과 모스크바 TV 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기관 방문과 공장방문을 통하여 조사 분석한 소련 전자산업의 면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관련 기술로서 일부 Medical Electronics (Imageprocessing 응용제외), 광학기술, Microwave 통신 및 반도체 Raw Material 제조기술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주로 Military 관련 (Defense Industry) 기술제품에 주력하여 일반 가전 및 산업용 장비의 설계, 제조기술은 낙후된 상태로 보이는데 경제 및 사회 체제상 이러한 상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통신 및 가전분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무한한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Product에 대한 설계, 기본원리 기술은 세계 수준인 점으로 보아 발전 가능성이 높다.

Raw Material에서는 완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어 협력부문이 다양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완료되어 있다고 하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Idea나 해외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경험, 시장진출 전략 등 생산 이후의 과

정에 대한 구체적인 Concept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수공장 등 Defense Industry에서 일반 소비재 부문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어 전자산업 모든 부문에 의욕과 관심은 높으나 쌍방의 Benefit, 외국 투자기업의 채권 확보문제, 대금의 결제방법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요소가 많으며 그 많은 Research Institute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공동생산, 설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고급인력도 풍부하다.

군사 및 Space Plan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원리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1차적으로 가능한 기술부문은 Satellite TV, 송수신 설계기술, Microwave 이동통신기술, 항공전자기술 등이 있으며, 기본 설계 생산기술이라 할 수 있는 Thin/Thick film Technics (Photo Masking 기술 포함) 등 전자제품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 성황이룬 리셉션

9월 10일 저녁 7시 우리 단원들이 묶고 있던 코스모스 호텔 2층 “계락티나”홀에서 열린 구자학 단장 주최 리셉션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라디오성 장관, 전자성차관, 통신성차관 등 소련의 전자관련 고위관리들과 업계 대표 등 총 120여명의 소련 전자산업의 주도적 인물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자리에서 구자학 단장은 이번 사절단이 한국의 주요 전자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가전제품, 통신기기,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수출입 증대와 전자통신기기의 합작투자 및 기술 제휴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소련을 방문하였으며 한국 업계는 HDTV 개발, 통신위성, 光 cable 분야에서 소련으로 부터 기술 도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히며 상호 보완적 협력증대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라디오성 장관의 답사, 공로명 駐蘇 영사처장의 격려사도 있었

다. 현지 주재원의 말을 빌면 지난 2년 동안 오늘과 같은 리셉션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 친근감 주는 古都, 레닌그라드

9월11일 저녁 우리 일행은 소련의 두번째로 큰 도시이며 옛 제정 러시아 시대의 수도, 지금은 모스크바와 더불어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레닌그라드로 향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속에서 레닌그라드는 한눈에 모스크바 보다 훨씬 정돈되고, 깨끗한 인상이었다.

제 2 차 세계대전중 300만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레닌그라드, 그 와중에서도 나찌의 침공으로 부터 도시를 사수하려 싸웠던 레닌그라드 시민의 무용담이 서린 이 도시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도시 전체가 유럽풍의 개방된 인상을 준다.

일행이 들었던 “프리발티스카야” 호텔은 발틱해 바로 옆에 위치하여 그 의미도 “발틱해 연안에 서서”라는 뜻이라 한다. 이곳에서 핀란드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라 하여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호텔도 전체로 밝고 친근감을 주고 서비스도 나은듯 하였다.

레닌그라드 제정 러시아 시대의 수도로서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 러시아 대문호, 시인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다.

레닌 광장에 위치한 “허미티지”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로 안내양이 없었다면 이속에서 일행은 쉽게 迷宮가 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 규모와 전시물의 수준에서 가히 세계적인이다. 고색창연한 조각품, 램브란트의 그림, 數톤 무게의 대리석기둥 등 이루어야할 수 없는 그 시대 최고의 걸작품 앞에 방문객은 쉽게 압도당한다. 이곳을 다 보려면 몇년이 걸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듯 하다. 이와 더불어 썬이삭 성당은 그 시대 이 도시의 또하나의 명물로 40만명의 40년에 걸쳐 건립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큰 규모의 건축물이 가능

할 수 있었는지 쉽게 상상이 가질 않았다.

안나카레니나의 무대였던 레닌그라드, 피터 대제의 많은 유적이 산재한 레닌그라드는 현재는 군수산업의 중심지로서 해외기업의 진출을 부르고 있다. 대형산업 센터가 이곳에 있고 전자, 조선, 기계공급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인구 3백만의 이 도시는 많은 Research Institute,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여 향후 투자대상 지역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레닌그라드는 모스크바와는 또다른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아쉬움을 남기고 오른 모스크바행 야간열차는 소련에서의 또 다른 색다른 경험 이었다.

### 소련, 소련사회, 소련인

열흘간의 짧은 방문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대하여 이곳이 어떤 곳이다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한편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글은 소련이라는 나라와 그 사회에 대한 심층 분석이라기 보다는 단편적인 느낌들의 모음이라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련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식적인 활동결과 보고서와는 별도로 이欄을 빌어 필자가 느낀 인상을 포괄적으로 적어보기로 하겠다.

소련은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의미심장한 전환기에 있다. 개혁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 각 공화국의 분리운동-민족주의 대두
- 관료주의의 비능률화로 인한 시민 경제 수준의 저하-생활품 등 물자부족
- 엘친 등 급격한 개혁파의 대두
- 생산성 비효율성에 의한 국제 경쟁력 부재
- 유통, 금융제도의 낙후 등으로 大別된다.

금년말까지 일대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고르비에 대하여 찬사보다

는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은 국민의 입장에 볼 때 “페레스트로이카를 부르짖은 이래 우리 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불만에만 기인하는 듯하다. 경제면에서 볼 때 생활품 부족, 인플레이 우려, 환율의 이중성, Hard Currency의 부족 등으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물자 부족상태는 심각하여 어디에 가나 줄서 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여자들은 큰 가방같은 것을 들고 다닌다.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먹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 뱀처럼 구부러진 행렬이 추석 귀성표를 사려는 서울역앞 광장을 연상시킨다. 이와관련 담배 한곽을 사려고 기다리다가 담배 한곽을 다 피웠다는 우스개 말이 있을 정도다.

소련사회도 전환기적 진통을 앓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변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이나 호텔에서나 소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한다. 열심히 일 하나 안하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약없이 식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口味에 맞추려 하기 보다는 주문 받은 식단에 따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수요가 공급을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생산에 그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의한 생산성 증가, 상품의 질과 서비스 향상의 노력 등은 아직 이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어느 식당에 가도 똑같은 빵, 포크, 글라스 등을 보며 인간의 성취 동기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이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느끼게 한다.

소련사회의 일면은 평균적인 모스크바 시민의 1달 월급은 200루블로 공정환율(0.57)로는 330불이나 암거래 환율로는 10불도 되지 않아 미화 100불로 1년을 산다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간의 불균형,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궁핍과 불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소련사람들이 게을리 보이고 생산

성이 낮은 것도 그들 자신의 탓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상황 탓이 더 크다 하겠다.

### 잠재력 큰 파트너, 그러나 노력과 인내가 필요

이제 한·소 양국의 수교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국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 증대는 필연적 현실로 다가온다.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미국과 EC에서 통상압력의 파고가 높고 아국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선진제국과의 기술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소련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대체시장으로서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면 양국의 교역증대를 위하여 소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소련은 우주, 군사, 항공을 기초 과학 부문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이다. 거의 첨단기술의 모든 기술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기술 제휴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 산업과 조화시키며, 고도의 기술을 Commercialize하는가 이다.

다음은 풍부한 시장성이다.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금융, 외화, 무역제도 면에서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많으나 경제 개혁이 원만히 추진되고 대외결재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 방대한 국토, 인구 등으로 보아 시장 수요는 막대하다 하겠다. 아울러 첨단산업 부문의 풍부한 노동력도 현지 투자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소련 경제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변화해 감에 따라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와 생활이 향상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생산성의 증가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소련시장을 우리의 대체적인 주력 수출 시장화 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심이 요망된다.

먼저 소련에 대한 이해의 증대이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 등 소련의 전반적인 부문에 걸친 폭넓은 理解가

여기에 진출하려는 기업, 기업가, 실무진 등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는 소련 전문가의 양성이다. 언어면에서도 소련은 정부관리중 일부 사람들만이 영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소련의 생활관습, 제도, 사회적 특성이 정통하고 소련인과 심정적 교류가 가능한 전문가의 양성에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망된다.

세째는 분별있는 판단과 시장전략의 구축이다. 소련의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의 관심은 전자분야 거의 전부에 관심을 표명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변변한 통계나 회사 브로슈어 같은 것도 없는 상태이다. 의욕이 앞서 한꺼번에 모든 일에 착수키 보다는 한가지 분야부터 착실하게 추진, 상대의 능력과 상관습에 익숙해짐으로서 확대를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본다. 또한 기술의 상품화와,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시장전략 구축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결 어

아직도 소련은 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남아있다. 세계적 불쇼이 발레와 거리의 생필품을 사기 위한 대열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삽화이며 달에 최초로 내린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과 노후한 시설, 한산한 모스크바 TV 공장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연상된다.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체호프, 고골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숭한 예술가를 낳았으면서도 빵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의 소련은 스스로도 많은 숙제를 던지지만 균형적인 산업구조와 경제발전, 바람직스러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번 여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현지 영사처, 주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신 단장님이하 단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들을 드린다.